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-

일자리 청년 · 창업분과 제3차 회의결과

「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」 제3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1.6.3.(목) 15:00~16:15 /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II(브릿지1)
* 회의종료 후 시설투어 진행(약 '50분)
- (참 석 자) 위원(8),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지원팀장, 투자창업과 창업기획팀장, 창업지원팀장
- (주요내용) ①신규의제* 제안 및 종합토론, ②시설 투어
* (의제명) 「인천고유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청년로컬 크리에이터」 / 황○○ 위원

□ 주요 논의내용

1 의제 제안사항

- (제안배경)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명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대한 홍보 미비. 청년들의 니즈('놀면서 돈벌자')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필요
- (제안내용) 인천의 명소, 맛집 등 지역콘텐츠를 생산(SNS 게재·홍보)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 등 지원* * 콘텐츠 제작공간, 장비 등
- 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는 청년 서포터즈 개념으로, 활동비는 '건 by 건'으로 지급하는 형태

2 의제에 대한 종합토론

- (추진방향)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'청년 활동지원'에 초점
 - 청년들이 SNS(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)를 활용하여 지역의 숨겨진 명소, 맛집 등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·홍보하고,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찾아가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로 제안, 콘텐츠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이 중점(황○○ 위원)
 - 청년들의 관점에서,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콘텐츠를 발굴, 소개하면 지역으로 청년들이 유입되며 상권이 살아날 것(임○○ 위원)
 - 또한 지역을 찾아가 콘텐츠를 제작하다보면 창업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창업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아님. 다만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관광벤처사업이나 예비·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가점

부여 등 기존사업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임(황○○ 위원)

-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*은 이미 하고 있으니 **육성과 창업보다는 청년에 대한 활동지원**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될 것(김○○ 부위원장)

* 콘텐츠코리아랩(市문화콘텐츠과) :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창제작 지원 등

○ (사업대상) 기창업자, 예비창업자 구분 없이 ‘지역 청년’

- 크리에이터 양성 등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(황○○ 위원)

○ (대상범위) 지역 내 구도심 등 낙후된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운영

* 예) 중구 등 원도심, 전통시장,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

○ (추진방법)

- 구도심이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, 청년창업자들의 시제품을 홍보하는 활동 등 트랙을 나눠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(임○○ 위원)

○ (기타의견)

- (고용창출) 창업이 아닌 단순히 활동지원만 할 경우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(이○○ 위원)
- 다만, 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많아지고 상권이 살아나면 장기적으로 고용창출이 발생할 수 있음(임○○, 황○○ 위원)
- (차별화) 인천관광공사, 일반기업 등 기존의 서포터즈나 블로거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것인지 논의 필요(임○○ 위원)
- (유사사례)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‘청춘 서포터즈’,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‘청년 서포터즈’ 참고

➡ **정식의제로 채택**, 차기 회의에서 안건 구체화하여 논의

* 제2차 정기회의(7.5.)에서는 ‘과제 발굴상황’으로 보고

□ **향후 계획**
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: ‘21. 7. 5.(월)
 - 청년·창업분과, 주요 이슈·과제 발굴상황 보고(분과위원장 참석)
- 제2기 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 제4차 회의 개최 : ‘21. 7월중
 - 제안의제(로컬 크리에이터) 검토보고 및 구체화 논의